

20대 여성의 미인형 분석을 위한 계측학적 연구

Anthropometric Studies on the Analysis of Women's Beautiful Face

박옥련* · 송미영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Oak-Reon Park* · Mi-Young Song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Abstract

The beauty itself cannot be changed by the time, but the concept of the beauty can be influence by the time and cultura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autiful faces or ugly faces among the young women and to provide useful guideline to make up for the modern concept of beauty. The facial photographs of 180 adult women(aged between 20 and 29) in Pusan and Ulsan area were sampled to be measured and classified as the beautiful or ordinary or ugly face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ings; the Beautiful face has a relatively small face with a broad forehead and a small lower face. It also has a wide palpebral fissure, narrow intercanthal distance, a narrow nose and a big mouth. Physiognomic face length was 182.38mm, the upper face length was 59.82mm, the middle face length 60.82mm, the lower face length 61.76mm, and the index of face length to face breadth was 1.35. And also the faces within the figures are considered as the beautiful or ordinary or ugly faces from those measurements like face length/bizygion breadth, intercanthal distance, mouth width, upper vermilion height, lower vermilion height.

Key Words : modern concept of beauty, beautiful face, ugly face.

I. 서론

이상적인 미인형 얼굴에 대한 개념은 시대의 문화, 사회, 경제, 관습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현대는 대중매체의 영향과 서구미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작고 윤곽이 뚜렷한 입체적인 얼굴형이 이상적인 미인형이 되었다.

상대방이 '아름답다'라는 판단은 개인적인 선호나 취향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인 얼굴 미모의 판단은 문화적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hodes G. 외, 2001). 사람들이 보편적인 얼굴 미모의 기준을 갖는 데에는 영화, TV, 잡지등 대중매체도 한몫을 하며, 세계미인 선발대회는 이러한 보편적인 미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중 하나이다. 얼굴 미에 대한 범문화적인 판단기준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얼굴의 특징을 규정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김한경, 2001).

지금까지 미인 형에 대한 연구는 성형학이나 미술해부

학 분야에서 얼굴에 대한 시각적 판단뿐만 아니라 생체 계측이나 간접계측의 방법으로 얼굴을 연구해왔다. 이 분야에서는 안면에서의 계측치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계측치에 의한 미의 기준을 분석하여 미적 가치의 성향을 계량적 측면에서 밝힘으로써 각 분야의 기초 자료를 제시 하였으나, 얼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계측 방법으로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미인형을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계측하여 현대의 이상적 미인으로 메이크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송미영, 박옥련(2004)의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긴형,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의 6가지 얼굴형을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얼굴 유형에 따른 미인형의 분포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Oak-Reon Park
Tel: 051) 620-4664, Fax: 051) 620-4665
E-mail: ylpark@star.ks.ac.kr

II. 한국인의 얼굴형과 이상적인 미인형

얼굴의 이상적인 미적 형태란 얼굴형과 입술, 코, 눈, 눈썹과 같은 세부 요소들 및 그것의 조합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미인형 얼굴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대 여성들은 가름한 형, 오동통하고 둥근형, 달걀형으로 여기에 반달 같은 눈썹, 얇은 눈매, 마늘쪽을 때어다 붙인 듯한 코, 앵두 알 같은 입술, 환한 얼굴을 선호했고, 특히 눈썹이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으로 눈썹화장에 신중하였다. 1890년대에는 둥근 얼굴과 경사진 어깨가 미의 기준이었고, 20세기 초에는 좁은 어깨와 뾰족한 얼굴이 선호되었다. 그 후, 1950년대에는 작고 단정한 어깨와 계란형의 얼굴이 패션모델이 지녀야 하는 신체조건이었고(Sharon Lee, Tate, 1991),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서구미의 개념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선호도 변화하여, 윤곽이 뚜렷하고 입체적인 얼굴형태가 이상적인 미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권혜숙, 1997), 오늘날 여성들은 작고 입체적인 얼굴을 선망하게 되었다(이화순, 1992).

박수진 외(2002)은 아름다운 얼굴의 감성적 구성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분석했는데 연구팀은 “사람들은 소프트한 얼굴보다 샤프한 얼굴을 더 아름답다고 평가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샤프요인이란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형 얼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런 얼굴형은 주로 연예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서구문화와 매스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미의 기준을 바꿔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인의 기준에서 얼굴의 가로:세로비를 보면 한국인 전통미인상은 1:1.29로서 계란과 하회각시탈의 장폭비 1:1.30과 일치하는 것이나, 현대미인상은 1:1.5의 좁은 얼굴로서 한국인 평균과는 다른 밀로의 비너스 등 그리스 여자 조각들과 정확히 같은 것이다(조용진, 1988).

조용진(1999)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는 세 가지 관점의 미인이 있는데 첫째는 고졸기(古拙期)형 미인으로, 한국여자의 평균적인 얼굴에 근거한 형으로 50-60대의 고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눈이 크지 않고, 턱이 있는 하안부가 약간 큰 형이다. 둘째는 고전기(古典期)형 미인으로 여기서 고전기는 미술사의 고전기로서 이 형은 눈썹이 시작하는 미간에서 코 밑까지의 얼굴 중앙에 해당하는 세로길이를 100으로 볼 때 하안부 턱이 96-100 정도를 차지하는 형으로, 한국인 30-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는 낭만기형(浪漫期) 미인으로 턱이 중앙의 86-9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턱이 작은 형이다. 10-20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형이라고 하였다.

미술사를 통해 보면 고졸기(Archaic)에는 중앙:하안의 비가 100:105-113인 인물묘사가 많았고, 고전기(Classic)에는 100:98-103 정도의 균형 잡힌 형이 많았으며 헬레니즘(Hellenism) 기에는 100:85-90으로써 하안부가 작은 형을 선호하고 있다(조용진, 1989). 또한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에는 그리스의 고전기 양식과 비슷한 현상이었고, 낭만주의 시대에는 헬레니즘기와 같은 인물묘사가 많았다.(장문호, 1986)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의 영향이 커서 간결과 실질을 숭상하던 조선시대 중기에는 인물 묘사에서 고전기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문화가 홀룡하던 후기 영.정조시대에는 헬레니즘 또는 낭만적인 특징을 보였다(이동주, 1987).

조대환외(1989)에 의하면 현대 한국청년들의 안면미관은 헬레니즘 양식, 낭만적 양식, 조선후기 미술양식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며 턱이 작고 눈, 코, 입이 서구적 미인관인 낭만기의 미인형이 우세하다는 사실은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서 온 것이지만, 10-20대의 체형도 서구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산업자원부의 2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에서 차지하는 다리길이 비율이 86년 47.6%에서 2002년에는 50.4% 높아졌으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긴 다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국민체위조사 결과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얼굴이 길어지고 다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서울 연합뉴스, 2003).

또한 박종섭 외(1990)의 한국인의 안 선호 경향에 대한 조사에서 아름다운 얼굴에서의 눈의 모습은 일반인들보다 크고 둥그랗고, 이것은 젊은층이나 장년층에서 공통된 경향으로 한국인들의 고정된 눈의 미관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였으며, 미인군의 쌍꺼풀 발현 율은 일반인들의 2배 이상이며, 미인군의 눈꼬리는 일반인군보다 덜 올라가 있어 눈이 좀더 수평적이라고 하였으며, 아름다운 여자의 코는 비익이 얇고 작으면서 비근점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하였다(윤정길 외, 1990).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미인형 얼굴의 특징은 서구적 모습의 동경과 낭만적이며 감성적인 미인 관에 따라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미인상을, 젊은층일수록 현대미인상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얼굴이 작고 턱이 작으며, 눈코, 입이 큰 여성을 현대미인형으로 본 점은 입이 작고, 미간이 넓은 한국의 전통미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미인관이 매우 서구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20대 여성의 얼굴 계측치를 한국 미인의 계측치와 비교 분석한다.
- 2) 얼굴 유형에 따른 계측치를 비교 분석한다.
- 3) 얼굴 유형에 따른 미인형, 평범형, 추녀형의 빈도를 분석한다.

2. 연구 대상

부산, 울산지역에서 200명을 편의 표집 하여 얼굴 정면 사진을 촬영하였고 직접, 간접 계측을 실시하였다. 계측과 사진촬영은 2003년 10월부터 12월에 실시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80명의 사진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는 20세에서 29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19-22세가 조사대상자의 71%를 차지하였다.

3. 연구 방법

첫째 계측방법은 Martin(1928)에 의거하여 직접계측과 간접계측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얼굴 부위 25항목의 계측치를 산출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참고로 20대 여성의 얼굴의 계측치를 미인형 계측치와 비교하였다. 셋째 6가지 얼굴 유형을 미인형, 평범형, 추녀형으로 분류하고 그 분포를 비교 분석 하였다.

4. 분석방법

계측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0.0를 이용해서 6가지 얼굴 유형에 대한 얼굴 계측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정을 실시하였고, 미인형, 평범형, 추녀형과의 비교검증을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얼굴 부위의 계측치 비교

<표 1>에서 문헌에 보고된 얼굴 부위의 각 계측치와 한국 미인의 계측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의 20대 여성 평균 얼굴길이는 182.38mm, 얼굴폭은 134.90mm, 그 비는 1:1.35로 나타났으며, 이동진 외(1989)의 성인여성의 안면부에 대한 사진계측학적 연구결과는 평균 얼굴길이 181.17mm, 얼굴폭 136.13mm, 그 비는 1:1.33 이고, 조준현(1993)은 얼굴길이 188.20mm, 얼굴폭 135.10mm, 그 비는 1:1.39이다. 문남원(1997)에 의하면 얼굴길이는 181.60mm, 얼굴폭은 131.30mm, 그 비는 1:1.38로 본 연구자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김철주외(1988)의 연구 결과에서 얼굴길이는 186.37mm, 얼굴폭은 144.72mm, 그 비율은 1.29로 전통미인형 지수인 1:1.29 (조용진, 1988)와 동일한 얼굴길이/얼굴폭을 보였다. 또한 위성신 외(1981)의 연구에 의한 한국미인의 평균 얼굴너비는 129.50mm, 얼굴길이는 186.0mm, 그 비가 1:1.43으로서 일반 성인여성의 얼굴길이와 얼굴폭 비에 비해 한국 미인의 얼굴 길이는 더 길고 가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용진(1999)의 연구에서 얼굴길이와 얼굴폭의 비를 보면, 한국인이 1:1.37, 일본인이 1:1.31, 태국인이 1:1.33으로서 일본인의 얼굴 윤곽이 전체적으로 가장 둥그랗고, 태국인, 한국인 순으로 한국인의 얼굴이 긴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결과와 Farkas(1985)에 의한 서양여성의 생체계측 수치로 계산한 얼굴길이/얼굴폭 지수인 1: 1.39, 전통미인형 지수인 1: 1.29과 비교해 보면 20대 평균 여성의 얼굴은 보다 서구적인 얼굴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의 길이의 경우 평균은 각각 59.97mm, 61.05mm, 61.38mm로 30.4%, 33.5%, 33.6%의 비례이며, Audran(1683)에 의해 이상적인 비례로 알려진(Farkas 외 1985) 1: 1: 1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위성신 외(1981)에 의한 한국미인의 경우에는 62.10mm, 61.90mm, 62.00mm으로 거의 완벽한 1: 1: 1의 비례를 나타낸다. Farkas 외 (1985)에 의한 서양여성의 경우에는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가 각각 29.6%, 33.7%, 36.7%로 나타났는데 그가 조사한 103명의 대상자 중에서 92%가 상안부가 중안부보다 짧고 100% 모두에서 상안부가 하안부 보다 짧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의 평균도 <하안> <중안> <상안>의 비를 가짐으로 서양 여성과 일치

하였다.

내안각폭의 경우는 34.75mm로서 오석준 외(1975)와 이동진외(1989)에 의한 34.50mm와 비슷하며, 김영호 외(1985)의 36.00mm 보다는 다소 짧았지만 위성신 외(1981)의 한국미인 평균치인 33.50mm 및 서양여성의 평균치인 32.30mm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미인의 눈 사이 폭은 서양여성과 같이 좁다고 볼 수 있다.

눈 길이의 경우는 24.52mm이며 이동진외(1989)의 24.17mm와 비슷하지만 한국미인의 평균치인 31.30mm 및 서양여성의 평균치인 31.00mm 보다는 짧아서 미인의 눈 길이는 서양여성과 같이 길다고 볼 수 있다.

비폭의 경우는 34.99mm이며 조준현 외(1993)에 의한 18세 여성 계측치인 34.20mm와 유사하였고, 위성신 외(1981)의 한국미인의 평균치인 33.90mm 및 서양 여성의 평균치인 33.00mm 보다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환 외(1989)의 한국 청년의 미추관에 의한 생체계측학적 분석에서도 미인형은 37.00mm이며 일반 여성의 경우 38.00mm으로 미인의 코 너비는 서양 여성과 같이 좁다고 볼 수 있다.

입술 길이의 경우는 43.87mm이며, 이동진 외(1989)의 43.99mm와 유사하였고, 위성신 외(1981)의 한국미인 46.20mm, 조대환 외(1989)의 20대 미인 47.17mm와 서양 여성의 평균치인 51.50mm 보다는 많이 짧은 편으로 미인의 입술은 서양 여성보다는 작지만 일반 여성에 비해

서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비폭과 얼굴폭의 비율을 보면 연구자의 경우 1: 3.85로서 이상적 비율인 1:4 보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비폭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이다. 서양 여성의 경우는 1: 4.05로서 비교적 이상적 비율에 가깝고, 위성신 외(1981)의 한국미인의 경우는 1: 3.82로서 본 연구자와 비슷하였다.

내안각폭과 비폭의 비율을 보면 본 연구자는 1: 1.022이고, 위성신 외(1981)의 한국미인은 1:1.012이고 서양인에서는 1: 1.021로서 한국 미인이 da Vinci에 의해 이상적인 비율로 알려진(Farkas 외, 1985) 1: 1에 더욱 가까웠다.

이상적인 비폭과 입술 길이의 비율은 1: 1.5로 알려져 있는데(Farkas 외, 1985) 본 연구자는 1.25로서 1.26의 한국미인이나 1.56의 서양 여성보다 덜 이상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비폭은 넓은데 비해 입술 길이가 짧은 편이어서 서양 여성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얼굴길이, 얼굴폭, 얼굴길이/얼굴폭, 내안각폭, 눈너비, 비폭, 입술폭 등의 수치 및 비폭과 얼굴폭의 비율 및 비폭과 입술폭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대 여성의 얼굴 계측치는 보다 서구적인 얼굴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미인의 특징은 얼굴이 가름하고 눈이 크고 길며, 안쪽 눈 사이 간격과 비폭이 좁고 입이 크다는 것으로 전통형 미인과 비교 시 서양 여성에

〈표 1〉 얼굴 부위 계측치 비교

단위: mm

연구자	본 연구자 (2003)	Farkas (1985)	위성신 외 (1981)	김철주 외 (1988)	이동진 외 (1989)	조대환 외 (1989)	조준현 외 (1993)	문남원 (1997)	
대상	20대 여성 (n=180)	서양 여성	18-25세 미인대회 출전여성 (n=125)	21-22세 대학생 (n=323)	18이상45 세미만 (n=120)	20대 미인 및 일반인 (n=423)	18세 남녀 (n=100)	20세 이상 (n=167)	
계측항목	여	여	여	여	여	미인 여	여	여	
얼굴길이	182.38	186.15	186.00	186.37	181.17	185.50	186.24	188.20	181.6
얼굴폭	134.90	133.50	129.50	144.72	136.13	145.44	145.32	135.10	131.3
하악폭	115.10			124.29		123.39	125.25	117.80	106.7
내안각간폭	34.73	32.30	33.50	35.89	34.54	34.04	36.72	35.50	
외안각간폭	82.60			98.97	83.02	100.99	99.86	99.70	
눈길이	24.52	31.00	31.30		24.17			33.40	
눈높이	9.18				7.88			8.50	
코너비	34.99	33.00	33.90	36.91	36.18	37.08	38.02	34.20	35.85
입술길이	43.87	51.50	46.20	46.41	43.99	47.17	46.17	45.90	
얼굴길이/얼굴폭	1.35	1.39	1.44	1.29	1.33	1.28	1.21	1.39	1.38
얼굴폭/비폭	3.87	4.05	3.82	3.92	3.76	3.92	3.82	3.95	3.66
비폭/내안각폭	1.022	1.021	1.012	1.028	1.047	1.089	1.035	0.963	
입술길이/비폭	1.25	1.56	1.26	1.26	1.22	1.27	1.21	1.34	

보다 가까운 수치와 비율로 미인의 기준이 매우 서구화 되었음을 보여 준다.

2. 얼굴 유형에 따른 계측치 비교

<표 2>에서 얼굴 유형별 계측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얼굴길이, 얼굴길이/얼굴폭, 상안부 길이는 얼굴 유형별 차이가 유의수준 0.001에서 나타났다으며 중안부, 하안부 길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눈에 관련된 계측치와 코와

입술에 관련된 계측치는 모두 얼굴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컨의 사후 검정 방법을 통해 계측치 간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얼굴길이는 계란형과 장방형이 가장 길고 등근형이 가장 짧은 얼굴길이를 보이고, 얼굴폭에서는 사각형이 가장 넓게 나타났고, 계란형이 가장 좁게 나타났다. 얼굴을 상·중·하로 3등분하였을 때 상안부 길이에서는 역삼각형이 가장 길고, 마름모형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중안부 길이는 계란형이 가장 길고, 등근형이 가장 짧았다. 하안부 길이는 마름모형이 가장 길고, 역삼각형이 가장 짧았다. 그러므로 상안부 길이가 가장 길고, 하안부가

<표 2> 얼굴형에 따른 계측치 비교

단위: cm

얼굴형 계측치	계란형 (21)	등근형 (54)	사각형 (25)	마름모형 (18)	장방형 (33)	역삼각형 (29)	전체 (180)	F값
얼굴길이	18.6148 C	17.8423 A	18.4184 BC	18.0444 AB	18.5129 C	18.3345 BC	18.24	5.06***
얼굴폭	13.2738 A	13.5702 AB	13.7128 B	13.5722 AB	13.3468 AB	13.4276 AB	13.49	1.55
상안부길이	6.0924 AB	5.8684 BC	6.1128 AB	5.6972 C	6.0303 AB	6.2272 A	5.99	4.51***
중안부길이	6.2814 A	5.9713 C	6.1000 ABC	6.0611 BC	6.2146 AB	6.1341 ABC	6.10	3.29**
하안부길이	6.2443 A	5.9920 B	6.2104 AB	6.3144 A	6.3085 A	5.9714 B	6.13	4.18**
눈너비	2.5238 B	2.4749 AB	2.4793 AB	2.3850 A	2.4100 AB	2.4259 AB	2.45	1.59
안쪽눈 구석사이거리	3.5338 A	3.4830 A	3.5212 A	3.4189 A	3.5132 A	3.3703 A	3.47	.61
비폭	3.45476 B	3.50741 AB	3.63320 A	3.49111 AB	3.49030 AB	3.41966 B	3.49	2.15
입술길이	4.4938 A	4.3994 A	4.4592 A	4.3200 A	4.3591 A	4.2961 A	4.39	.95
윗입술폭	.9448 A	.6515 A	.7268 A	.6633 A	.6891 A	.6424 A	0.66	1.531
아래입술폭	1.0319 A	1.0264 A	1.0240 A	1.0350 A	1.0515 A	1.0293 A	1.03	.148
얼굴길이/ 얼굴폭	1.4037 A	1.3162 D	1.3447 CD	1.3295 D	1.3913 AB	1.3673 BC	1.35	13.01***
얼굴폭/ 비폭	3.8526 A	3.8755 A	3.7894 A	3.9052 A	3.8480 A	3.9442 A	3.86	0.97
비폭/ 내안각폭	1.0222 A	1.0187 A	1.0543 A	1.0267 A	0.9970 A	1.0162 A	1.02	0.92
입술길이/ 비폭	1.3032 A	1.2539 AB	1.2202 B	1.2374 B	1.2560 AB	1.2597 AB	1.25	1.58
아랫입술/ 윗입술	2.4937 A	1.6328 B	1.4436 B	1.5743 B	1.5075 B	1.6426 B	1.67	1.56

던컨테스트 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 < B < C < D)

* : P ≤ 0.05 ** : P ≤ 0.01 *** : P ≤ 0.001

가장 짧은 역삼각형이 미인형의 가능성이 가장 많고, 상안부가 짧고, 하안부가 가장 긴 마름모형이 추녀형의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얼굴길이/폭을 보면 계란형은 평균 1.40, 장방형은 평균 1.39로 가장 가름하고 긴 얼굴 길이로 이상적 비율인 1:1.5에 가까우며, 둥근형은 평균 1.31로 가장 얼굴 길이가 짧으므로 얼굴을 길게 보이게 하는 윤곽수정과 눈썹, 아이샤도우 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눈너비에서는 평균 2.52로 계란형이 가장 길며, 마름모형은 평균 2.38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내안각폭과 입술 길이와 폭은 얼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비폭은 계란형은 평균 3.45이며, 역삼각형은 평균 3.41로 가장 좁게 나타났다.

얼굴폭/비폭을 보면 이상적 비율인 1:4 에 1:3.94 의 역삼각형이 가장 가깝고, 비폭/내안각폭의 비율은 이상적인 비율인 1:1에 1:0.997의 장방형이었다. 특히 입술길이/비폭에서는 이상형인 1:5에 가장 가까운 얼굴형은 1:1.30의 계란형으로 이상형에 비해 비교적 차이가 있는데, 이는 비폭은 넓고 입술 길이는 짧아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메이크업으로 입술을 크게, 코 너비를 좁히고 높게 하면 이상형에 가깝게 할 수 있다.

또한 윗입술과 아랫입술 폭의 이상적 비율인 1: 1.5에 가장 근접한 얼굴형은 1: 1.49의 계란형과 1:1.51의 장방형이었다. 이것도 또한 입술의 폭을 조절하는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얼굴길이/얼굴폭,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길이 등이 얼굴유형에 따라 미인형을 구분하는 주 기준이며, 이외에 비폭, 내안각폭, 입술 폭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부분의 균형을 위해 메이크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얼굴 유형과 미인형의 분포

조대환 외(1999)에 의하면 얼굴을 이마부터 미간까지 상안, 미간에서 코 밑까지 중안, 코 밑에서 턱 끝까지의 하안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을 보면 미인 형은 88.73 : 100 : 98.59이며, 평범형은 88.29 : 100 : 102.08, 추녀 형은 84.49 : 100 : 103.18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이마가 넓을수록 미인 형에 가까움을 알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턱이 클수록 추녀 형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다.

조용진(1999)의 연구에서도 미인형인 호감 형은 중안을 기준으로 볼 때 호감형의 상안, 중안, 하안의 비가 93.18 : 100 : 98.52 였고. 비호감형의 비가 93.29 : 100 : 103.15 로서 현대 미인의 기준은 중안을 기준으로 하안이

짧은 형의 얼굴을 미인 형으로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얼굴길이/얼굴폭의 비로 산출했을 때 호감 형에서 1 : 1.36, 평범 형에서는 1 : 1.40, 비호감형에서는 1 : 1.34로서 서로 수치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표 3>에서 조대환 외(1999), 조용진(1999), 위성신(1981), Farkas 외(1985)의 미인형 비율을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얼굴유형에 따른 미인 형, 평범 형, 추녀형의 분포를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얼굴유형에 따라 미인형 분류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얼굴길이/얼굴폭은 유의한 차이가 크며($P<0.001$), 상안부 : 중안부 : 하안부의 비율, 비폭/내안각폭, 아랫입술/윗입술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상안부 : 중안부 : 하안부의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미인 형이 많은 얼굴은 역삼각형(68.9%)이며, 계란형(57.1%), 둥근형(53.7%)의 순이었다. 사각형은 평범형(24.0%)이 적고, 미인 형(36.0%), 추녀형(40.0%)의 분포가 많아 가장 개성 있는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추녀형이 많은 얼굴은 마름모형(61.1%)이며, 일반적으로 미인형으로 알려진 계란형에도 추녀형(33.3%)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얼굴형만으로 미인 형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얼굴의 이상적인 비율에 가까우면 얼굴형에 관계없이 미인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길이/얼굴폭의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는 이상형인 1:1.5의 비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계란형(28.5%), 장방형(27.2%), 삼각형(24.1%)순이었다. 추녀형에는 둥근형이(68.52%)이 가장 많으며, 사각형(56.0%), 마름모형(27.78%) 순이었다.

얼굴폭/비폭은 얼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이상적 비율인 1:4에 가장 가까운 얼굴형은 역삼각형(41.38%)이 많았으며, 비폭/내안각폭의 이상형인 1:1의 비율에 가장 가까운 얼굴형은 계란형(33.33%)이고 사각형(96.0%)이 가장 평범형에 많았다. 입술길이/ 비폭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이상적 비율인 1:1.5에서 미인형은 계란형(33.33%)이 가장 많았고, 평범형은 마름모형(94.44%)이 가장 많았다. 또한 아랫입술/윗입술의 이상적 비율인 1:1.5에는 둥근형(59.26%)이 가장 많았고, 평범형은 사각형(68.0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안부:중안부:하안부 비율(47.2%)과 아랫입술/윗입술폭의 비율(50.%)에는 미인형의 분포가 많으나 얼굴길이/얼굴폭(13.8%), 입술길이/비폭(17.2%), 비폭/내안각폭(19.4%)의 비율은 비교적 미인형이 적게 분포했는데 이는 20대 평균 여성의 경우 이상형에 비해 비폭은 넓고, 입술 길이가 짧은 편으로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표 3〉 계측항목에 따른 얼굴 유형별 미인형 빈도 분석

단위:명(%)

계측항목	분류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	전체	χ^2 값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미인형	12 (57.14)	29 (53.70)	9 (36.00)	3 (16.67)	12 (36.36)	20 (68.97)	85 (47.22)	19.1183*
	평범형	2 (9.52)	10 (18.52)	6 (24.00)	4 (22.22)	5 (15.15)	3 (10.34)	30 (16.66)	
	추녀형	7 (33.33)	15 (27.78)	10 (40.00)	11 (61.11)	16 (48.48)	6 (20.69)	65 (36.11)	
	전체	21	54	25	18	33	29	180	
얼굴길이/얼굴폭	미인형	6 (28.57)	0 (0.00)	3 (12.00)	0 (0.00)	9 (27.27)	7 (24.14)	25 (13.88)	43.7576***
	평범형	12 (57.15)	17 (31.48)	8 (32.00)	8 (44.45)	20 (60.60)	14 (48.28)	79 (43.88)	
	추녀형	3 (14.29)	37 (68.52)	14 (56.00)	10 (55.56)	4 (12.12)	8 (27.59)	76 (42.22)	
	전체	21	54	25	18	33	29	180	
얼굴폭/비폭	미인형	6 (28.57)	13 (24.07)	6 (24.00)	5 (27.78)	9 (27.27)	12 (41.38)	51 (28.33)	2.3840
	평범형	15 (71.43)	41 (75.98)	19 (76.00)	13 (72.22)	24 (72.72)	17 (58.62)	129 (71.66)	
	전체	21	54	25	18	33	29	180	
비폭/내안각폭	미인형	7 (33.33)	13 (24.07)	1 (4.00)	2 (11.11)	8 (24.24)	4 (13.79)	35 (19.44)	10.8468*
	평범형	14 (66.66)	41 (75.92)	24 (96.00)	16 (88.89)	25 (75.76)	25 (86.20)	145 (80.55)	
	전체	21	54	25	18	33	29	180	
입술길이/비폭	미인형	7 (33.33)	10 (18.52)	3 (12.00)	1 (5.56)	6 (18.18)	4 (13.79)	31 (17.22)	6.3445
	평범형	14 (66.67)	44 (81.48)	22 (88.00)	17 (94.44)	27 (81.82)	25 (86.21)	149 (82.77)	
	전체	21	54	25	18	33	29	180	
아랫입술/윗입술	미인형	10 (47.62)	32 (59.26)	8 (32.00)	10 (55.56)	13 (39.39)	17 (58.62)	90 (50.00)	12.6763*
	평범형	11 (52.38)	22 (40.74)	17 (68.00)	8 (44.45)	20 (60.6)	12 (41.38)	90 (50.00)	
	전체	21	54	25	18	33	29	18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계측하여 얼굴 유형에 따른 미인형의 분포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대 여성의 계측치는 얼굴길이/얼굴폭 평균지수 1: 1.35로 보다 서구적인 얼굴형태에 가까우며, 한국미인의 계측치는 전통형 미인과 비교 시 서양 여성에 가까운 수치와 비율을 보이며, 미인의 기준이 매우 서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 얼굴 유형에 따른 계측치를 비교한 결과 얼굴길이와 얼굴길이/얼굴폭,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길이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눈, 코와 입술에 관련된 계측치

는 모두 얼굴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을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로 비교하면 상안부 길이가 길고, 하안부가 가장 짧은 역삼각형이 미인형의 가능성이 가장 많고, 상안부가 짧고 하안부가 가장 긴 마름모형이 추녀형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얼굴길이/폭을 보면 계란형, 장방형이 가장 가름하고 길며, 둥근형, 마름모, 사각형은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폭/비폭의 이상적 비율에는 역삼각형이 가장 가깝고, 비폭/내안각폭은 장방형이 가장 가깝고, 구열폭/비폭에서는 계란형이었다. 또한 윗입술과 아랫입술 폭은 계란형과 장방형으로 나타났다.

3) 얼굴형에 따른 미인형, 평범형, 추녀형의 빈도를 얼굴을 상안, 중안, 하안으로 나누어 그 비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마가 넓을수록 미인 형에 가까워지고, 턱이 클수록 추녀형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인형은 상안부의 길

이가 가장 길고, 하안부의 길이가 가장 짧은 역삼각형이 가장 많았으며, 사각형은 평범형이 적고, 미인 형과 추녀형의 분포가 많아 가장 개성 있는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다.

얼굴길이/얼굴폭, 비폭/내안각폭, 입술폭/ 비폭의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는 계란형이 이상적 비율에 가장 많았고, 얼굴폭/비폭의 이상적 비율에 가까운 얼굴형은 역삼각형이며, 아랫입술/위 입술의 이상적 비율에는 등근형이 가장 많이 분포했다.

일반적으로 미인형으로 알려진 계란형에도 추녀형의 분포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얼굴형만으로 미인 형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또한 얼굴길이/얼굴폭, 입술길이/비폭, 비폭/내안각폭의 비율은 비교적 미인형이 적게 분포했는데 이는 이상형에 비해 비폭은 넓고, 입술 길이가 짧아서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굴의 유형, 눈, 코, 입술의 각 부위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강조하고 보완하는 메이크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얼굴 각 부위의 이상적인 비율에 가까우면 얼굴형에 관계없이 미인형이 될 수 있으며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계측하여 얼굴 유형에 따른 미인형의 분포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이상적 미인으로 메이크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얼굴 유형에 대한 연구 등의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현대 미인의 개념, 미인형, 추녀형

참 고 문 헌

- 권혜숙 (1997). 얼굴형이 여성의 신체적 매력측정에 미치는 영향. *상명여자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논문집*, 4, 55-68.
- 김한경 (2001). 얼굴 미모의 구조적 특징 및 감성적 구성 개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호, 김용성, 이세일 (1985). 한국여성의 안검에 대한 생체계측학적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2, 325-329.
- 박종섭, 함기선, 윤정길, 조용진 (1990). 한국인의 안선호 경향에 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196-200.
- 박수진, 김한경, 정찬섭 (2002). 아름다운 얼굴의 감성적 구성 개념.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342-347.
- 송미영, 박옥련 (2004). 20대 여성의 얼굴유형 분류 및 형태적 특성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8(1), 76-90.
- 윤정길, 한기선, 조용진 (1990). 한국인의 비선호 경향에 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190-195.
- 오석준, 고인창, 이영호, 유재덕 (1975). 한국인의 안면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 15-19.
- 이동진, 김우경, 김수신, 백세민, 정전은 (1989). 한국 성인 여성의 안면부에 대한 사진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3), 423-432.
- 이동주 (1987). *한국회화사론*. 서울, 열화당.
- 이화순 (1992). 한국여성의 Make-up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성신, 함기선, 이재용, 조용진 (1981). 한국미인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8(2), 283-289.
- 장문호(1986). *서양미술사*. 서울, 형설출판사.
- 조대환, 함기선, 조용진 (1989). 한국청년들의 미추관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6), 926-931.
- 조용진 (1988). 현대 한국인의 미인관. *한국학논집*, 14, 619-626.
-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사계절.
- 조용진 (1989). *우리 몸과 미술문화*. 서울, 미술교육사.
- 한기환, 김성조, 강진성 (1982). 한국인 코의 생체 계측치. *대한성형외과학회지*, 9(1), 1-9.
- 20대 미혼 여성 표준체형 8등신 됐다 (2003.2.13). 서울 연합뉴스. 자료 검색일 2004. 4. 8, 자료출처 <http://prince@yonhapnews.co.kr>.
- Farkas LG, Sohm, P, Kolar, JC, Katic, MJ, Munro, IR (1985). Inclination of the facial profile : Art versus Reality. *Plast. Reconstr. Surg*, 75, 509-515.
- Langlois JH, Roggman LA (1990). Attractive face are only averag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1(2), 115-121.
- Martin. R (1928). *Lehrbuch der Anthropologie II*, Gustav Fisher, jena.
- Rhodes G, Yoshikawa S, Clark A, Lee K, McKay R, Akamatsu S (2001). Attractiveness of facial averageness and symmetry in non-western culture : In search of biological based standard of beauty. *Perception*, 17, 43-63.
- Cunningham MR, Roberts AR, Baebee AP, Duren PB, Wu CH (1995). Consistency and variability in the cross-cultural perception of female physical attra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61-279.
- Sharon L, Tate (1991). *Fashion Handboo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5. 06. 30 접수; 2005. 09. 15 채택)